

재난 유가족의 낙인경험 탐색: 낙인사회인지모델을 적용하여 세월호 재난 5년 시점에서의 가족협의회 유가족을 대상으로

권 욱 현 허 소 정 이 동 훈[†]
석사과정생 성균관대학교 교수
석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의 낙인경험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세월호 재난 이후 5년 시점에서 유가족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의 기술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연구참여자는 유가족협의회에 소속된 부모 15명이었다. 면담자료는 Corrigan과 Kosyluk (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의 관점에서 Braun과 Clarke(2012)가 제안한 주제분석 절차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세월호 유가족의 낙인경험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으로 분류한 후, 각각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세분화하였다. 사회적 낙인에서의 고정관념은 세월호 유가족은 ‘함께 하기에 불편한 존재’, ‘보상과 혜택을 받은 사람’ 등 6가지 범주, 편견은 세월호 유가족은 ‘부담스럽고 불편함’, ‘시샘이 남’ 등 6가지 범주, 차별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비난을 숨기지 않음’, ‘무관심해짐’ 등 5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자기 낙인에서의 고정관념은 ‘나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 등 3가지 범주, 편견은 ‘죄책감’, ‘두려움’ 2가지 범주, 차별은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함’ 등 3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또한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뜻이 맞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며 소속감을 느낌’ 등 5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세월호 재난, 5년 시점, 유가족, 낙인, 낙인사회인지모델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
암관 1112호 /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낙인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구성원 혹은 다른 낙인대상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낙인이라는 개념은 정신질환자의 경험 연구에서 시작했지만, 낙인은 자살이나 기타 부자연스럽거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한 유가족들이 경험하는 현상이기도 하다(Pitman, Osborn, Rantell, & King, 2016). 낙인은 낙인대상자로 하여금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서, 사회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Livingston & Boyd, 2010), 외상 경험의 회복을 저해하며 외상회복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Corrigan, Markowitz, Watson, Rowan, & Kubiak, 2003), 삶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낙인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적 낙인은 부정적인 사회적 개념을 바탕으로 차별 대상자와 관계 맺기를 꺼려하고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 대상자에 대한 회피뿐만 아니라 사별한 유족에 대한 불신, 두려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포함한다(Cvinar, 2005).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 차별 대상자는 사회, 정치, 경제적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서, 차별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낙인이다(Livingston & Boyd, 2010).

Corrigan과 Kosyluk(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Social Cognitive Model of Stigma)은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자살시도경험자, 자살유가족 등 그 대상을 넓혀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 개인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Sheehan, Corrigan, Al-Khouja, & Stigma Research Team, 2016; Sheehan et al. 2018). 낙인사회인지모델에 따르

면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은 각각 낙인의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stereotype), 감정적 요소인 편견(prejudice), 행동적 요소인 차별(discrimination)로 세분화된다(Corrigan & Kosyluk, 2014). 고정관념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와 같이 사람들이 낙인을 쓴 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편견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두렵다”와 같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동의하는데서 오는 감정적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고정관념과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차별대상자에게 불공평하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별적 행동은 특히 취업, 거주 및 대인관계 장면에서 차별대상자에게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rrigan et al, 2003). 사회적 낙인의 경우처럼 자기 낙인도 고정관념, 편견, 차별의 과정을 겪는다. “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다”와 같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내재화할 때 자기 낙인의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고정관념은 “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느낀다”는 감정적 반응인 편견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편견은 “무능한 나를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취업활동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와 같은 자신에 대한 행동인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낙인대상자가 낙인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낙인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대인관계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chulze & Angermeyer, 2003). 낙인의 대상은 대인관계, 취

업 등 삶의 전반에서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며 (Angermeyer, Matschinger, & Riedel-Heller, 1999), 차별에 대한 대처로 위축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낙인 대상자의 삶 속에 스며들어 외상 경험의 회복을 저해하는 등 회복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rrigan et al. 2005). 특히 자기 낙인으로 인해 차별대상자는 자기가치를 낮게 인식하고, 스스로 위축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Corrigan & Shapiro, 2010). 그 결과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아존중감이 감소하고, 삶의 질, 자기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우울, 불안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성기혜, 2009; 이재운, 박현숙, 2017; Kao et al. 2016; Markowitz, 2001; Picco et al. 2016). 또한 정신질환자의 낙인경험에 관한 45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자기 낙인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정서, 사회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ivingston & Boyd, 2010).

낙인경험이 낙인대상자의 삶과 회복과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임에도 지금까지의 낙인연구는 정신질환자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왔고, 최근에서야 자살시도경험자, 자살유가족 등 대상자를 넓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낙인은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어울릴 수 없으며,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고, 자살유가족에 대한 낙인은 가족구성원의 자살은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비롯될 수 있다 (Sheehan et al. 2018). 반면, 재난 유가족의 낙인경험연구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경험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세월호 유가족의 낙인경험이 언급되고 있다.(김아람, 2019; 이동훈 등, 2017a). 또한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재난 후 2년 시점에서 지인, 친지, 직장동료들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진, 이동훈, 전지열, 2018;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서은경 2017b). Stroebe, Folkman, Hansson와 Schut(2006)는 사별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고립을 언급하였는데(Stroebe et al. 2006), 낙인 대상자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고,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며,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정진철, 양난미, 2010; Yanos, Roe, Markus, & Lysaker, 2008). 이는 낙인대상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사별 후 적응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인경험이 개인의 삶과 사별 후 적응과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재난 유가족을 대상으로 낙인경험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의 경우 지속적으로 낙인경험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낙인경험이 세월호 유가족의 삶을 회복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낙인경험을 재난 이후 5년 시점에서의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낙인사회인지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04명의 희생자 가족 중 111명의 희생자 가족으로 이루어진 4.16 가족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재난 후 5년이 흐른 시점에서 유가족의

낙인경험을 탐색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이후 5년 시점에서 유가족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의 구술자료를 2차 자료분석(secondary analysis)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잃은 부모 15명을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 4명, 여자 11명으로 4쌍은 부부 참여자이고,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한 명 이상의 남겨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부부 참여자 한 쌍을 제외한 13명의 연구참여자는 남겨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가 15명 중 8명의 연구참여자는 세월호 재난 이후 자영업, 사무직, 부동산업 등의 직장 생활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가 15명은 모두 재난 이후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15명 중 12명은 본 연구의 연구자가 진행한 세월호 재난 후 2년 시점인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면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016년 당시 연구참여자가 선정을 위해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이 활용되었다. 이때에 연구자들은 2016년 3월에 수도권에 위치한 8곳의 대학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하여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간담회가 종료된 후에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연구에 동의하여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한 다른 유가족을 추천받았다. 그 뒤로 3년 후, 재난 후 5년 시점이 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2016년에 면담에 참여한 동일한 17명에게 2019년 1월경 다시 직접 연락을 하여 재난 후 5년 차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면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면담을 요청하였다. 낙인이라는 부정적 인지, 정서, 행동적인 경험은 꺼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참여자를 새롭게 모집하기 보다는 2년차에 면담과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된 기존 연구참여자를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먼저 접촉하였다. 이전 연구참여자가 17명 중 ‘건강 악화’, ‘시간 여유가 없음’, ‘인터뷰 참여를 원치 않음’, ‘유가족 협회외의 활동에만 몰입하려함’의 이유로 5명이 면담 참여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12명이 연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다시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면담 이후 본 연구에 참여 가능한 다른 유가족을 추천을 받았고, 총 3명의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다.

5년 시점에서 눈덩이표집으로 새로운 연구참여자를 3명 더 추가한 이유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주제분석이라는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는 데에 적절한 수의 연구참여자가 확보가 필요했으며, 더불어 2년 시점과 5년 시점의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가 12명의 자료와 5년 시점에 새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가 3명의 자료를 비교해봄으로써, 자료분석 및 연구결과 제시 과정에서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호 재난 2년 시점인 2016년에 실시된 면담에 참여한 12명과 눈덩이표집방법으로 새로이 2019년 면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3명을 추가하여 총 1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자택이나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상담전공 박사과정 1인과 상담 전공 석사과정 2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20분에서 1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은 2016년에 1차로 실시되었던 면담 자료가 있는 12명의 경우, 면담자료를 면담 전 꼼꼼하게 읽고 주요 내용들을 숙지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재난 이후 5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것 같으신지요?”라는 질문으로 개인의 낙인경험 전반을 탐색하였고, 필요에 따라 고정관념, 편견, 차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었다. 고정관념에 관한 질문은 “유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 같으신지요?”, 편견에 대한 질문은 “유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 것 같으신지요?”, 차별에 대한 질문은 “유가족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요?”와 같았다. 면담 중 연구참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연구참여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면밀히 분석하려고 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면담 종료 후 일주일 내로 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면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Corrigan과 Kosyluk(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의 관점에서 Braun과 Clarke(2012)의 주제분석

(thematic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Braun & Clarke, 2012). 질적연구에서는 잘 정립된 이론이나 분석틀에 의거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권장된다(Creswell, Hanson, Clark, & Morales 2007; Yin, 2009). 주제분석은 질적자료 속에서 주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자하는 바가 분명할 경우 권장되기도 하며, 주제의 숫자 빈도를 기록하는 등 유연한 접근방식을 제공한다(Bennett, Barrett & Helmich 2019). 본 연구에서는 재난 유가족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낙인이 개인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며 유형화되고 있는지를 범주화시키기에 주제분석이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Corrigan과 Kosyluk(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을 기반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인과 관련한 모든 코드를 생성한 후, 낙인사회인지모델이 제안한 낙인 주제인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낙인경험을 통합하였다. 낙인사회인지모델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분석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에 포함되지 않은 낙인경험의 맥락이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주제로 분류하고 통합하였다. 재난이 일어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들이 처한 상황과 유가족이 경험하는 낙인 현상에 대해 면밀히 고려하였으며, 세월호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재난 및 외상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경험 및 질적연구 논문 출판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1인과 재난을 주제로 한 연구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과정 1인, 상담전공 석사과정 2인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Braun과 Clarke(2012)가 제안한 6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Braun & Clarke, 2012).

첫째는 ‘자료에 익숙해지기’이다. 본 단계는 녹음된 자료를 전사하고, 계속해서 읽으며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은 면담을 전사하고, 전사된 면담 내용을 계속하여 읽으며 자료에 친숙해지고 내용을 익혔다. 두 번째는 ‘초기 코드 생성하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의 특징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코딩하며 각 코드와 관련한 자료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은 전사된 자료를 읽으며 낙인경험과 관련한 코드를 생성하였고, 생성한 코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는 ‘주제 찾기’이다. 이 단계는 위에서 생성한 각 코드들을 주제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낙인사회인지모델의 틀인 고정관념, 편견, 차별을 큰 주제로 코드들을 통합하고, 틀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통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낙인사회인지모델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 낙인경험은 새로운 주제로 분류하고 통합하였다. 네 번째는 ‘주제 검토하기’ 단계로, 주제가 코딩한 자료들과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전공 교수 1인과 상담전공 박사과정 1인, 상담전공 석사과정 2인이 생성된 코드에 따른 주제가 적절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섯 번째는 ‘주제를 정의하고 이름붙이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주제를 세부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분석하고 각 주제에 대한 정의와 이름을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제의 명확화 작업을 진행하며 주제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 회의하였다. 마지막은 ‘결과 만들기’이다. 이는 보고서 및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로 선택한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만드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는 5단계까지 진행한 작업들을 다시 한 번 검토

하고 결과표를 만들고 분석결과에 대한 서술을 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및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연구참여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진행되었다(No. 2016-05-007). 첫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소속과 연락처, 연구목적과 방법을 밝히고 연구참여자들에게 면담 녹음과 축어록 내용이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표기될 것임을 전달하였다. 또한 면담 진행 중 혹은 면담이 종료된 후, 언제라도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자발성,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 면담진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심리적,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중단하고 지역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담전공 교수 1인과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2명이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면담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dgett(1998)이 제안한 방법으로, 연구자가 충분한 시간을 연구참여자와 함께함으로써 자료 수집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기간 관계형성’ 방법을 활용하였다. 낙인경험은 매우 사적인 경험이고, 부정적인 심리 내적, 외적 경험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세월호 재난 2년 시점에 동일한 인터뷰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위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세월호 재난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락과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낙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다수의 질적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질적연구 방법론 전문가(박사) 1인에게 자료분석에 대한 수차례 자문 및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범주명이 모든 핵심내용들을 포착하고 있는지, 해당 주제에 대해 빠짐없이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고 자문을 주었으며, 본 연구자는 감수자의 의견을 토대로 주제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면담 직후 인터뷰를 통해 얻은 느낌, 통찰 등에 대해 연구자들과 공유하며 연구참여자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갖지는 않았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월호 재난과 관련된 기록, 낙인을 주제로 수행된 기존 문헌들을 고찰하는 삼각검증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세월호 재난의 특성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본 연구참여자들이 갖는 독특한 경험은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겪고 있는 낙인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이 보고한 낙인경험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으로 주제를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을 낙인의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인 편견,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적 반응인 차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Corrigan과 Kosyluk(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에서 제시한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이라는 주제 외에도 낙인을 수용하지 않고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이 또 다른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모든 사회적 낙인을 자기 낙인으로까지 내재화하지 않았음을 뜻하며, 개인마다 낙인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다름을 뜻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관련 내용을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주제화하였다. 사회적 낙인에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은 각각 6개, 6개, 5개의 하위 주제로, 자기 낙인에서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은 각각 3개, 2개, 3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또한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은 5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사회적 낙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된 사회적 낙인경험을 진술하였으며,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편감과 관련한 낙인경험 또한 다수 보고하였다.

고정관념

함께하기에 불편한 존재.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후, 가까이 어울렸던 사람들과 더 이상 어우러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며 주변인들이 연구참여자들을 함께 하기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모임

표 1. 사회적 낙인

고정관념 (인지적 요소)	사례 수	예시
(세월호 유가족은...)		
함께하기에 불편한 존재	9	· 유가족은 울면서 대할 수도, 웃으면서 대할 수도 없는 불편한 존재임 · 유가족은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는 존재이기에 함께하기가 불편함
보상과 혜택을 받은 사람	4	· 유가족은 보상금으로 호의호식하며, 보상금 및 병원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음
지역의 경제를 망친 사람들	2	· 유가족은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존재임
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존재함	2	· 유가족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보니, 유가족들은 모두 그 사람같이 행동할 것이라 생각함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2	· 유가족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만족할 줄 모름
장기간 방황하는 신앙인	1	· 유가족은 재난 이후의 충격으로 방황하며 신앙생활에 소홀함
편견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 사례 수		
(세월호 유가족은...)		
부담스럽고 불편함	8	· 유가족은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대하기 어려운 존재이기에 부담스럽고 편하지 않음
시샘이 남	3	· 유가족은 보상금으로 재산을 불리고 여러 혜택을 받았기에 시샘이 남
원망스러움	2	· 유가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원망스러움
지겹고 반감이 생김	2	· 유가족이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는 것이 지겹고, 정치적인 색이 있는 것 같아 유가족에 대한 반감이 생김
매정하다고 느낌	2	· 유가족은 자녀를 떠나보내고도 보상을 받고 웃으며 생활하는 무정한 사람임
측은함	1	· 유가족은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애쓰기에 불쌍하고 측은함
차별 (편견에 의한 행동) 사례 수		
(세월호 유가족에게...)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 거리를 둠	7	· 사람들이 유가족과 어울리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기에, 어울리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둠
보상금에 관한 불편한 말과 행동이 지속됨	6	· 사람들이 보상금에 대해 시샘하며 관련한 질문을 하고 수군거리는 등 보상금에 관한 부정적인 언행을 숨기지 않음
자녀의 죽음을 수용하도록 강요함	4	·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산 사람은 살아야지'와 같은 말을 건네며 괜찮아질 것을 강요함
비난을 숨기지 않음	2	· 사람들이 유가족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고 활동하는 테이블을 엮고 고성을 지르는 등 원색적인 공격과 비난을 가함
무관심해짐	2	· 지역사회가 유가족 문제에 점점 등을 돌림

에 참석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불편감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지인들이 자신을 웃으며 대할 수도 울며 대할 수도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느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울릴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였다.

“그쪽 상대방들(지인들)도 우리 만나는 게.. 가족들 아닌 친구들.. 지인들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만나는 게... 꺼려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보상과 혜택을 받은 사람. 연구참여자들은 언론과 사회가 보상 문제에 주목하게 됨에 따라, 주변 친지들과 직장동료, 사회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보상과 각종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조차 보상금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만 관심을 갖고 ‘차는 안 바꿨니? 이사는 안 갔니?’ 등의 질문을 건네었으며, 직장동료들도 ‘보상금을 받았으면서’ 왜 일을 하는지 시샘어린 의문을 표현하였다. 의료지원을 받을 때에도, 자신을 떠난 자식을 앞세워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기고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기도 하였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슬한 상처는 재난 이전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으로도 이어졌다.

“일단은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식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세월호 재난 직후)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대개,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거라고. 직접적으로 내 앞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너 충분히 보상받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다니냐?’ 그런 식의 시선이죠.” (연구참여자 8)

지역의 경제를 망친 사람들. 연구참여자들은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재난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자체는 추모공원 설립이 지역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로 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였는데,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깃들어있는 지역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시선은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중시켰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디에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지금 안산시랑 추모공원 설립할 때도 안산시랑 엄청 부딪혔었거든요. 뭐 이래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추모공원을 왜 설립하냐’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안좋아진다’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그 마음이 하

나도 없었거든요.” (연구참여자 6)

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존재함.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후, 한 개인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부여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개인의 행동은 마치 유가족 모두의 행동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과격한 행동이나 시비가 붙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유가족 한 개인의 반응을 유가족 전체 집단의 반응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유가족 전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개인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의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주변의 인식은 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감정과 행동에 대한 검열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기존의 ‘자신’이 사라지고 ‘유가족’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어딜 가든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 주홍글씨는 지워지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유가족이 되게 인원이 많잖아요. 학생만 해도 250명인데. 얼마나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중에 한사람이 뭔가를 돌출행동을 하거나 수준에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과격행동을 했건. 모든 게 다 통으로 저희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유가족이 불평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야죠. 문제가 아로 낙인이 찍힌 거죠.” (연구참여자 9)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혹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살 받을 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

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자녀를 잃은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음에도, 주변 사람들은 마치 보상으로 그 아픔이 대체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자녀 죽음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을 충분한 보상에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상실의 슬픔에 대한 이해 없이 보상에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로만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았다.

“사실은 일정부분 어떤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친하지는 않더라도 말을 섞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술하게 상처 주죠. 뭐 돈 받았는데 돈 가지고 뭐했나? 돈 받았으면 됐지(라고 말 하면서).” (연구참여자 11)

장기간 방황하는 신앙인. 재난 이전, 성실하게 종교생활을 하던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죽음 이후 성실했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재난 이후, 피해자와 약자를 돌보지 않는 교회의 이면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회의감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자신의 회의감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을 재난의 충격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앙인으로만 바라보았다.

“그 (신앙)생활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얘기해요. 그런데 전 안 간다고, 갈 수 없다고 그건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서 있

는 지점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거기로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게 잘 하는 거라고... 내가 벗어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세월호 충격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제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연구참여자 3)

편견

부담스럽고 불편함. 자녀의 상실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를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어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지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함께하기 부담스럽다는 주변의 기색과 그에 대한 인식은 이미 위축되어있는 연구참여자들에게 한층 짙은 고립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지금 모임을 나가면 그 분들이 술 먹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걸 왜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설전을 하지? 얼굴 붉혀가면서 얘기를 하지? 내가 보기에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모임을 가도 나는 대화를 안 끼게 되는 거죠. 겉도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불편하겠지. 내가 와서 분위기 망치고.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죠.” (연구참여자 7)

시샘이 남. 자녀는 돈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음에도, 주변 사람들

은 연구참여자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언론에서 보도된 보상금의 액수와 혜택에만 집중하며 시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연구참여자 와 그 배우자들은 직장 동료들이 자신에게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왜 나와서 일을 하느냐는 시샘어린 질문을 지속하자 그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리하였으며 사람에게 대한 기대를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허, 대박 많이 받았다’, ‘평생을 벌어도 언니 그렇게 못 받는다’, ‘애 하나 죽었는데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연구참여자 10)

원망스러움.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활동을 비롯하여 추모공원 설립문제가 대두되며, 지역사회는 연구참여자들을 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원망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역사회를 괴롭히는 존재처럼 여겨졌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원망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오랜 기간 함께해온 지역사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를 남겼다.

“분통터져요. 자기 아기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왜 하필 안산에 사냐. 애들 안산 애들이었어요. 안산에서 뛰놀고 자랐던 애들이예요. 누가 품어야 돼요? 안산 시민이 품어야 돼요. 근데 반대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민들을 괴롭힌다 그래. 우리 애들은 시민 아니었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연구참여자 6)

지경고 반감이 생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며, ‘유가족’으로서의 자신을 지켜온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과 세월호 재난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표시하는 반감을 견뎌내야 했다. 활동을 지속하는 유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시선은 연구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비롯한 유가족과 뜻을 함께 하는 타인에게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을 숨기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만 좀 하면 안되냐고’ 말을 건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자 연구참여자들은 지인들에게조차 자신의 아픔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였다.

“목사님은 아직도 뱃지를 달고 다니시거든요. 모든 장소에서. 누구의 결혼식을 가든 장례식을 가든 회의를 가든, 교단 회의를 가든,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설교 하실 때도 뱃지를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세월호냐, 아직도 뱃지를 달고 있냐, 이런 말씀 들으시죠.” (연구참여자 9)

매정하다고 느낌. 자식을 떠나보낸 아픔을 간직한 채 일상을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자신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 앞에서 웃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연구참여자들을 자식을 떠나보내고도 웃는 매정한 부모로 취급하는 듯 했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조차 자식을 잃고도 지원을 누리는 매정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후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가서 내가 울어야 돼, 웃어야 돼. 내가 계속 울고 있으면 아직도 울고 있다고 그럴 거고, 웃으면 너는 자식을 보내 놓고 웃냐 이렇게 할 거고.” (연구참여자 13)

측은함. 주변 사람들은 자녀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부탁하는 연구참여자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정어린 시선은 오히려 연구참여자를 더 힘들게 만들었기에, 연구참여자는 비난이나 측은함을 담지 않은 판단 없는 시선을 바라고 있었다.

“그런 부분(주변의 시선이)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봐주면... 봐 줄 수도 있을 건데. 측은하게 안 봐줘도 돼요. 불쌍하게 안 봐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돼요.” (연구참여자 8)

차별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 거리를 둬. 자녀의 죽음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지인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자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는 마치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주변의 차별 행동은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일상적인 대화 자체도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그런 어떤 시각이, 사회적인 시각이 벌써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내 시선 하고도. 뭐랄까 보통 평범한 이웃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협의회 일을, 저희도 가족협의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겨지고) 약간 좀 뭐랄까 격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보상금에 관한 불편한 말과 행동이 지속됨.

자녀 죽음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연구참여자들은 보상금에 대한 주변의 직접적인 질문과 관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보상금에 대한 주변의 지나친 질문과 관심을 경험하며 대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고하였으며, 직장에서는 퇴사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주변사람들의 보상금에 관한 언행은 일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철수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애들 아빠는 가장이니까 그래도 몇 달 두어 달 같이 활동을 하다가 6월 달 부턴가 회사를 잼어요.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도 있고 시선도 있고 말이 들어오니까 자기 귀에. 세월호가 어쩌네, 보상금이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걸 못 견디

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연말까진가 한 1년을 더 못 채우고 다시 복직하고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연구참여자 13)

자녀의 죽음을 수용하도록 강요함. 자녀의 죽음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기 전, 평범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연구참여자들에게 괜찮아질 것을 강요하거나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라는 말을 건네었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외상은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주변에서 건네는 서툰 위로의 말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녀의 죽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요로 느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재난으로 인한 아픔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며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기에, 서툰 위로보다는 묵묵히 자신을 지켜봐주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살만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살만하지 않거든요. 버티는 거지. 그냥 안 알아줘도 되긴 하는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해줬으면 하고. 웃어지는 거지 즐거워서 웃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구참여자 5)

비난을 숨기지 않음. 연구참여자들은 유가족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진상 규명을 위해 사람들의 서명을 받을 때,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엮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소리로 ‘좌파, 빨갱이’라고 말하는 등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무시한 채, 유가족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난만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을 경험하며, 연구참여자들은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다.

“서명을 받아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 목사님이 직접 서명을 받고 다니시거든요. 주머니 안에 항상 서명지를 접어서 넣어 가지고 다니시고. 그럴 때는 서명지 받을 때 테이블을 엮는다던지...큰소리로 성을 내는 사람들이 많죠.” (연구참여자 9)

무관심해짐.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재난 이후, 연구참여자들을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며 유가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 이상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외면으로 일관하는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모습은, 공동체라 생각해왔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트렸다.

“아니. 같이 자랄 때는 같이 시민이었는데 . 세월호 참사 이후로는 (같은) 시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게 논리인거죠. 우리 같이 어울려 사는 동네인줄 알았는데. 외면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너무 아파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보다는 안 아플 거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소리를 좀 들을 줄 아는 안산시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참여자 12)

자기 낙인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스스로 수용하고 내재화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감정,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과 불편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느꼈으며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 또한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부여됨에 따라 스스로도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개인의 정체성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정관념

나는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함께하기에 불편한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에서의 고정관념을 내재화하고, 스스로를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기색을 느끼고 스스로도 어울리기에 불편한 존재로 자신을 규정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대화하거나 웃으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잠시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볼까 두려워하였으며, 일상 곳곳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친구들하고 대인관계도 예전에는 그냥 들이대기라도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는

표 2. 자기 낙인

고정관념 (인지적 요소)	사례 수	예시
나는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	7	· 나는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평범하게 대화하거나 웃고 떠들어서는 안되는 사람임 ·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임
나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	4	· 나는 죄인이기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는 안 되며, 힘든 것들을 달게 받아들여야 함 · 나는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한 것이 없기에, 욕을 먹어도 마땅함
내가 사라지고 나의 정체성이 '세월호 유가족'이 됨	4	· 나는 유가족이기에 내가 죽더라도 주변은 나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임 · 나의 개별적인 행동은 개인의 행동이 아닌 유가족 전체의 행동임
편견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	사례 수	예시
죄책감	7	· 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에 일상생활 중에도 죄책감이 들
두려움	3	· 나의 모든 행동을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 주변의 시선이 겁이 남
차별 (편견에 의한 행동)	사례 수	예시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함	11	· 나는 함께하기 불편한 사람이기에 세월호 재난관련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점차 관계를 단절해 나감 · 나의 행동이 유가족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봐 외출을 자제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생활함	9	· 사람들이 불편해 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함 · 내가 유가족임이 밝혀질까 이웃주민들의 눈치를 보게 됨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됨	3	· 나는 사람들과 평범하게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직장생활을 하지 못함

커튼을 둘둘 말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로.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재 세월호 유가족이라서 그러는 거 아냐? 재 되게 예민해졌어’ 이런 표현 들을까봐 인간관계도 그냥 내가 스

스로 피하게 되는 거야.” (연구참여자 10)

나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던 일이 없었으며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녀 죽음의 원인을 규

명하지 못한 것은, 희생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힘든 것은 견뎌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사회의 거센 비난을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게 되면서 사회가 주는 상처 위에 스스로 또 다른 상처를 덧입히고 있었다.

“그게 제일 미안한 거 같아요. 참사 당일 날 그 배사고 난 곳 갔었거든요? 배 타고? 사실은 엄마면 거기 들어가서 아이를 구해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눈물) 내가 그걸 못했어요.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런 거 같애. 경험하고 어쨌든 지금 지내고 있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똑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해보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 (연구참여자 15)

내가 사라지고 나의 정체성이 ‘세월호 유가족’이 됨.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강하게 부여받고 그를 내재화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세월호 유가족’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유가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낙인을 강하게 내재화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일종의 꼬리표는 죽어서도, 심지어 다음 세대에서도 떼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으며, 사회가 부여한 집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구속하였다.

“어디를 가도. 이사를 가도.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나중에 죽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이 꼬리표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꼬리표는 붙어있겠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이 만났을 때 이 꼬리표가 언제쯤 떨어질 수 있을까. 다음 세대는 될까. 평생 안고가야 할 흔적인건데.” (연구참여자 9)

편견

죄책감. 자식의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던 경험은 죄책감으로 이어졌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자식을 보호하지 못한 존재로 여기며 자녀의 죽음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보였다. 자녀의 죽음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癒어지지 않는 죄책감은 일상생활의 과정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을 짓눌렀고, 장을 보거나 경제생활을 하는 등의 평범한 행동들에 대한 자책을 야기하였다. 일상에서 마주친 지인이 건넨 ‘뭘 사러 왔어?’라는 평범한 인사말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라는 죄책감을 거쳐 ‘자식 보내고 뭘 사먹냐’라는 말로 바뀌어 들리기도 하는 등, 짙은 죄책감은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을 왜곡시키기도 하였다.

“새끼 잡아먹은’.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가 되게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연구참여자 5)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그를 내재화함에 따라, 주변의 시선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검열로 이어졌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장을 보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봐질까 두려워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전부터 만나오던 지인들과 교류할 때 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으며, 이에 점차 주변 관계를 회피하게 되었다.

“아이 생일이 거의 겨울이라서 11월 달이라 파카를 하나 사고 장을 봤어요. 상을 차려야 되니까. 근데 그걸 들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주위 눈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은 우리 아이 생일인 걸 모르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 생일이기 때문에 파카 가방을 하나를 큰 거를 하나 들었고 음식 장만을 하려고 음식 재료들을 샀는데, 과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 보내고 뭘 저렇게 많이 사서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13)

차별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함.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고 스스로를 어울리기에 불편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식함에 따라, 점차 관계를 축소해나가며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전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불편감은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물러나

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또한 유가족 활동에 대한 비난 및 보상금에 관한 부정적인 언행들은 연구참여자들이 기존의 대인관계를 단절하고 유가족 집단에 한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행동이 유가족 전체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유가족의 이미지에 누가 될까 외출을 자제하며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길을 가다가도 저를 아는 분을 만날 거 아니에요? 제가 숨어요. 내가 죄지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알잖아요. 00이가 그렇게 됐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 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 것이고, 나도 사실 그 사람을 보는 게 힘들고. 또 어떤 말을 해줘야할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의 불편한 감정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못 본 척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연락하고 지냈던 사람들은 아예 못 만나요.” (연구참여자 15)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생활함.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연구참여자들이 하여금 주변의 눈치를 보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전에 편하게 어울리던 관계에서조차 자신의 말이 분위기를 해칠까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만남 자체를 꺼리는 등, 대인관계에 소극적이 되거나 교류의 기회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유가족’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유가족임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에 주변의 눈치를 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밖에 나가서 (술을) 먹으면 얘기하다 보면 사실 서럽거든요. 처음에는 세월호 얘기를 안하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 활동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얘기하다보면 주위의 눈치를 보게 되요. 목소리가 올라가고, 커지고. 집에서는 편하죠. 그냥 소리를 지르든 싸우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밖에서 먹으면 시비 이런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우리는 그냥 술집에서 싸움이 나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꼭 세월호 유가족이 나오니...” (연구참여자 7)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하게 경험하고 내재화하면서 스스로도 자신을 ‘세월호 유가족’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생존자녀는, 자신이 유가족임이 밝혀진 이후 달라진 회사 사람들의 태도를 느끼며 퇴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연구참여자는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세월호 재난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전처럼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차피 제 일로 못돌아가요. <중략> 아무래도 그 일(이전 직장일)을 하게 되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거고. 내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내 가족들이 아닌 일

반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못해요. 제가 못 이길 것 같애.” (연구참여자 15)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은 Corrigan과 Kosyluk (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에서 제시된 요소는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면담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낙인을 내재화하지 않고 낙인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가족에 대한 바깥 세계의 오해를 풀어가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주변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태도는 낙인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보호해주었다. 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대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보호해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뜻이 맞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며 소속감을 느낌.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며 대인관계 내에서 슬한 상처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언행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보호해준 것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유가족과의 연대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유가족과 있을 때만 큼은 사회의 부정적이고 동정어린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에, 다른 곳과 달리 유가족과 함께할 때에는 마음 편히 웃고 농담도 할 수 있었다. 특히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이러한 소속감은 현재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였다.

표 3.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

범주	사례 수	예시
뜻이 맞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며 소속감을 느낌	10	· 유가족과 있을 때만큼은 사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 · 유가족과 함께하며 소속감을 느낌
가족협의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외부인들과 교류함	7	· 기억저장소 운영, 세월호 문화제, 간담회 참여, 교실준치,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유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오해를 풀어감
사회적 인식과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	7	· 다른 사람의 의견, 사회적인 인식과 언론 보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를 바라봄으로써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기름
자신에게 찍힌 낙인이 부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함	6	· 사회는 나를 비난하지만, 나는 재난으로 자식을 잃은 명백한 피해자임
과거 다른 사회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함	4	· 다른 재난의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위로받고 서로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우리 유가족끼리만 모여서는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나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소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버티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고 하면 정말...” (연구참여자 15)

가족협의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외부인들과 교류함.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세월호 기억저장소 운영, 간담회 참여 등의 활동은 유가족이 아닌 외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자 기회이기에,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와 소통하고 유가족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풀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 가지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저희 합창단도 그렇고 기억저장소나 공방이나 여러 방법으로 계속 알리면서 이 진실(자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종 저희들이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마음은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쪽으로 모아지면서 충분히 나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3)

사회적 인식과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후, 사회적 인식 및 언론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렀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나 언론이 제시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는 그것이 틀리거나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도 이어져, 낙인으로부터 연구참여자들을 보호해주는 요인이 되었다.

“표면적으로만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 남들이 해석해 주는 것, 국가가 제시하는 것, 교육기관이 제시하는 것, 교회가 말해주는 것 여기에 따라가기에만 급급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히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를 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략>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됐어?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연구참여자 3)

자신에게 찍힌 낙인이 부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함. 연구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재난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낙인의 부당함을 인지함으로써 낙인을 내재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이 아닌 ‘유가족 전체’로서만 여겨지는 인식이 옳지 않으며, 언론보도 혹은 사회적 인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저희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 정말, 아이 잃은 슬픔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

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너무 보상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 사회적으로 떠드는.. <중략> 그렇게 뭔가 사실이 아닌 걸 보도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정말 들여다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언론 상으로 떠들어대니, 사람들은 밖에서 다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6)

과거 다른 사회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함.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후, 대구 지하철참사 및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다른 재난과 관련된 행사나 현장에 방문하여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중요한 이의 죽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른 관계보다 깊은 공감대를 낳았으며, 연구참여자들은 깊은 공감대를 통해 다른 관계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대구(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분들이 옛날에 그랬대요. 가족들(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와서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논 의

본 연구는 4.16 가족협의회에 활동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

은 유가족의 낙인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자살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Corrigan과 Kosyluk (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을 적용하여 세월호 재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의 낙인경험을 살펴보았다. 면담 분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을 모두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낙인경험들은 낙인사회인지모델에서의 세 가지 틀인 고정관념, 편견, 차별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 사회적 낙인의 고정관념 6개, 편견 6개, 차별 5개의 범주가 추출되었고, 자기 낙인의 고정관념은 3개, 편견 2개, 차별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Corrigan과 Kosyluk(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결과들도 나타났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낙인을 그대로 내재화하지 않고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명명하고 이를 주제화 하였다.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은 총 5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세월호 유가족의 사회적 낙인에서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은 ‘함께하기에 불편한 존재’, ‘보상과 혜택을 받은 사람’, ‘지역의 경제를 망친 사람들’, ‘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존재함’,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장기간 방황하는 신앙인’의 6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또한 사회적 낙인의 정서적 요소인 편견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은 ‘부담스럽고 불편함’, ‘시샘이 남’, ‘원망스러움’, ‘지겹고 반감이 생김’, ‘매정하다고 느낌’, ‘측은함’의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낙인

의 행동적 요소인 차별로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어울리는 게 부담스러워 거리를 둠’, ‘보상에 관한 불편한 말과 행동이 지속됨’, ‘자녀의 죽음을 수용하도록 강요함’, ‘비난을 숨기지 않음’, ‘무관심해짐’의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주변인들은 연구참여자들을 함께하기 어렵고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가족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주변의 고정관념은 부담과 불편의 감정인 편견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들에게 거리를 두는 차별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트라우마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별유가족의 주변인들은 사별유가족을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고, 말걸기 어려워한다는 선행연구(Chapple, Ziebland, & Hawton, 2015)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지인, 친지, 직장동료들과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유진 등, 2018; 이동훈 등 2017b)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고립 양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이는 낙인 대상자는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고,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Yanos et al. 200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부재와 고립은 사별 이후 삶의 적응을 늦추고, 회복적 대처를 저해할 수 있다(Stroebe, Folksman, Hansson, & Schut, 2006).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인들이 연구참여자에게 대해 충분히

보상받았으면서 계속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세월호 재난 후 2년 차 시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관계 경험을 다룬 선행논문에서도 지인들이 보상에 관해 ‘로또 맞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며, 보상에 관심을 갖는 친지와 의 갈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이동훈 등, 2017b). 연구참여자들이 계속해서 보상을 받으려 한다는 고정관념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샘과 원망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결국 보상에 관련해 불편한 말과 행동을 하고, 유가족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차별행동으로 이어져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개인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이 아닌 ‘유가족’으로만 여겨지는 고정관념은 유가족을 둘러싼 많은 고정관념들로 인해 결국 편견의 감정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는 유가족을 외면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고정관념과 그로 인한 편견과 차별의 모습은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 연구(김아람, 2019)에서 유가족들은 한 개인이 아닌 ‘유가족’이기 때문에 웃음도 자유롭지 않으며, ‘공인’처럼, ‘피해자답게’와 같이 ‘유가족다움’을 요구받았다는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사별 이후의 대처과정을 설명한 사별대처의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1999)에 따르면 상실의 아픔을 털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사회적 관계형성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별 대처인 회복중심대처가 사별대

처에 있어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유가족이 상실감에 하루 종일 극한적인 슬픔에 잠겨 있다가 견딜 수가 없을 때 식사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등의 일상적인 삶을 재개하며 회복중심대처를 하게 된다. 이러한 회복중심대처를 위해서는 떠난 이의 빈자리를 수용하고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다움’을 강요받음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부정적인 정체성에 갇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현상을 “피해자 비난(victim blaming)”이라고 한다(Greer, 2007; Watt, 2007). 피해자 비난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함승경, 2019). 또한 재난피해자들 중,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경우 사회는 피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홍주현, 나은경, 2015). 본 연구결과, 세월호 유가족 또한 피해자 비난으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되며 이차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Neimeyer와 Jordan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자 비난으로 인한 이차적 외상은 애도의 박탈로 이어져 사별 대처와 심리적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Neimeyer & Jordan, 2002).

자기 낙인은 위와 같은 사회의 부정적 평가 즉, 사회적 낙인을 수용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재화할 때 나타난다(Livingston & Boyd, 2010). 자기 낙인에서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으로는 ‘나는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 ‘나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인’, ‘내가 사라지고 나의 정체성이 세월호 유가족이 됨’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고

정관념으로 인한 감정인 편견으로는 ‘죄책감’, ‘두려움’의 2가지 범주가 도출되었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행동적 요소인 차별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생활함’,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됨’의 3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함께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여 스스로를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재화된 고정관념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졌고, 눈치보며 살아가며 관계를 단절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이는 유가족이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행동을 의식하며, 음주를 하더라도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는 세월호 재난 후 2년 차 시점에서의 선행연구(이동훈 등, 2017a)에서 제시된 모습의 심화된 결과이다.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재난 이후의 삶을 공인 아닌 공인이 된 채 ‘유가족’으로써 살고 있었고, ‘피해자답게’ 살기위해 점점 위축되어 사람들과 단절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직장차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난 또는 사고로 가족구성원을 잃게 된 유가족은 개인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직장생활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한다(Rogers, Floyd, Seltzer, Greenberg, & Hong, 2008). 본 연구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마음 속 깊이 있는 떠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에서 직장동료들이 수군대는 말에 대꾸를 할 수도 없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이는 세월호 재난 이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마치 유령

같은 존재로 지낸다는 2년차 시점에서의 선행연구(이동훈 등, 2017b)의 심화된 결과이며, 대구시 지하철 화재참사와 같은 다른 재난에서도 재난 후 대인관계 문제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연구(이선영, 2011)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식을 못 지킨 못한 부모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고, 행복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낙인찍고 있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져 눈치보며 살게 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철수로 이어졌다. 이러한 죄책감은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드러났는데, 재난이나 사고, 자살로 가족구성원을 잃은 유가족들은 자신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꼈고(Chapple, Ziebland, & Hawton, 2015), 주변에서의 책임을 묻거나 비난 행동으로 인해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Peters, Cunningham, Murphy, & Jackson, 2016). 이러한 자기 낙인으로 재난 유가족은 마음과 행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느낌을 받게 된다(Corrigan & Shapiro, 2010), 이는 결국 자아존중감, 삶의 질,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성기혜, 2009; 이재운, 박현숙, 2017; Kao et al. 2016; Livingston & Boyd, 2010).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유가족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닌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존재한다는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신 장애인이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나 자신이 아닌 ‘정신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며, 사회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현명선, 김영희, 강희선, 남경아,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살로 남편과 사별한 사별자의 경우에도 사별 이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살한 남편을 둔 여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Peters et al. 2016). 자녀를 상실한 삶 속에서 새로운 역할과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녀의 빈자리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회복중심대처(Stroebe & Schut, 1999)를 저해받게 되는데, 회복중심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슬픔이 낮고, 자기효능감, 개인적 성장이 높다는 점(Caserta & Lund, 2007)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이 모든 사회적 낙인을 그대로 내재화하여 자기 낙인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를 낙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인으로는 ‘뜻이 맞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며 소속감을 느낌’, ‘가족협의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외부인들과 교류함’, ‘사회적 인식과 언론 보도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 ‘자신에게 찍힌 낙인이 부당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함’, ‘과거 다른 사회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류함’ 5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과는 단절되어 갔지만 가족협의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는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연대하고 있었으며 더불어 다른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소속감은 사회적 낙인으로부터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Corrigan과 Watson의 상황적 모델(situational model)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이어지는 않으며, 집단동일시가 자기 낙인의 완화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민화, 서미경, 2019; Corrigan & Watson, 2002). 집단동일시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동일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Bhattacharya, Rao, & Glynn, 1995). 집단동일시가 높을수록 그 집단은 응집력이 높고, 사회적 낙인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Watson, Corrigan, Larson, & Sells, 2007), 자기옹호, 반낙인 운동을 통해 사회적 낙인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게 된다(Corrigan & Watson, 2002).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유가족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재난으로 자식을 잃은 피해자일 뿐, 사회적 낙인이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성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Corrigan과 Watson(2002)의 상황적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정당성 인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정당성 인식이란 차별대상자가 사람들의 차별적 지위나 태도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는데(Schmader, Major, Eccleston, & McCoy, 2001), 정당성 인식이 낮을수록 고정관념, 편견, 차별에 저항하며(Watson et al. 2007), 자아존중감이 보호될 수 있다(Corrigan & Watson, 2002). 실제로 사회적 낙인에서는 보상금 문제가 두드러졌지만 이는 자기 낙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않았고, 이는 오히려 억울함과 같은 감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모두 가족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 인식은 낮고, 집단동일시는 높아 각종 사회적 낙인에 대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

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유가족에 대한 오해와 낙인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접촉이론(Allport, 1954)에 근거한 ‘접촉’은 낙인을 받는 집단과 낙인을 찍는 집단 간의 직접적, 간접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반낙인 전략으로 입증되고 있다(Corrigan & Gelb, 2006). Kosyluk 등(2016)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접촉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아무런 처치가 없는 통제집단과 정신장애를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 접촉집단을 비교한 결과, 접촉집단은 차별, 태도, 치료요청 등 모든 영역에서 통제집단에 비해 사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유가족 아닌 낙인을 극복하게 하는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반낙인을 기대한 의도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재난 후 5년의 시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을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중에게 알려진 공적인 사별에서 슬픔을 ‘허락받는 것’은 사별대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Chapple, Ziebland, & Hawton, 2015), 연구참여자들은 슬픔을 허락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낙인이 낙인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갖고 있는 사회적 낙인과 그에서 비롯된 세월호 유가족의 자기낙인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사별 후 고인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시간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2개월, 6개월, 12개월 등 2년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PA, 2013; Prigerson et al.

2009; Shear, Wall, Zisook, & Neimeyer, 2011).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재난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재난 후 개인 외적, 내적으로 ‘유가족다움’을 요구 받고 있었고(김아람, 2019),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아람, 2019; 김은미, 김병오, 2018; 이동훈 등, 2017b; 전지열, 신지영, 최준섭, 김정환, 이동훈, 2019). 이는 세월호 재난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불안과 우울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양기근, 2008; Goodenough, Drew, Higgins, & Trethewise, 2004). 특히, 대형 재난을 통해 가족과 사별한 경우에 유가족은 외상적 상실(traumatic loss)를 경험할 수 있는데(Walsh, 2007), 외상적 상실을 경험한 유가족은 일반적인 사별을 경험한 유가족들보다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겪어, 3년에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된다(Feigelman, Jordan, & Gorman, 2009). 실제로 재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월호 유가족은 주변으로부터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 비난과 조롱을 경험하고 있었다(김아람, 2019).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난 심리지원 및 상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괜찮아서는 안된다는 자기 낙인을 가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낙인대상자는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ivingston & Boyd, 2010), 이 점을 고려하여 상담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재난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의 죽음 이후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에 사회적 대인관계기능 회복에 재난심리지원과 심리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난 유가족의 상담에 있어서 반낙인(anti-stigma)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장에 가더라도 세월호 리본을 잠시 숨기고 장을 보게 되는 등 공인 아닌 공인이 되어 ‘피해자답게’ 살기 위해 계속해서 위축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자기 낙인은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불안 및 사회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ao et al. 2016; Livingston & Boyd, 2010), 장기적으로 자기낙인을 보이고 있는 재난 유가족에 대한 반낙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가 유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낙인 감소 개입으로는 낙인에 대한 수용 및 인지적 개입과 대처기술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많고, 인식개선을 위한 인지행동 개입이 사용된다(이은주, 2016). 하지만 이는 모두 정신장애에 관한 낙인 감소 접근이며, 실제로 국내와 해외 모두 낙인감소의 개입은 정신장애인 혹은 고위험군 개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재난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낙인 감소 개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을 파악하여, 재난 유가족 상담에 있어 재난 피해자가 낙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재난을 경험하였거나 비슷한 재난을 겪어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집단과의 교류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자조집단은 유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었다는 점에서(김유진 등, 2018), 재난 피해자들에게 자조집단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지 않는 것에 있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부당함을 인식하거나 비판적 수용 태도를 지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심리상담 장면에서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하지 않고, 사회가 부여하는 낙인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넷째, 국가적,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재난유가족에게 무의식적으로 행사할지도 모르는 편견과 차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회적 낙인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함이라기보다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쌓인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중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사회적 낙인과 피해자 비난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낙인을 줄이는데에는 차별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만남 모두 긍정적 결과를 낳지만, 만남에 기반한 개입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낙인과 피해자 비난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Corrigan, Morris, Michaels, Rafacz, & Ru'sch, 2012). 따라서 국가적,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 낙인의 주제와 관련된 향상된 대중의식을 위한 사회적 재난관련 교육 및 낙인예방 교육, 매체를 통한 인식 캠페인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피해자 유가족이 겪는 낙인경험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유가족의 궁극적 목표인 자녀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되는 낙인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가족의 낙인경험은 외상 이후 경험을 다룬 연구들에서 조금씩만 언급되었을 뿐(김은미, 김병오, 2018; 이동훈 등, 2017a), 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낙인에 대하여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낙인사회인지모델을 재난 유가족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낙인사회인지모델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결과들도 나타났는데, 연구참여자들은 낙인을 그대로 내재화하지 않고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낙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주제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Corrigan과 Kosyluk(2014)의 낙인사회인지모델을 기반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모델의 틀에 포함되지 않은 낙인의 맥락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낙인사회인지모델을 기반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적용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오히려 구조화 된 분석 틀로 인해 내용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며, 이들의 낙인경험으로 인한 사별대처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결과가 모든 세월호 재

난 유가족의 특성일 수는 없다. 더불어 세월호 재난에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민감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낙인경험의 양상이 다른 재난유형을 경험한 피해자들과 다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자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에 속한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재난 유가족들과는 낙인경험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아람 (2019). ‘세월호 유가족’이 된 희생자 부모의 활동과 그 의미. *구술사연구*, 10(1), 107-143.
- 김유진, 이동훈, 전지열 (2018).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자조집단 경험에 대한 연구. *재활심리연구*, 25(4), 667-699.
- 김은미, 김병오 (2018).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 상실 경험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9(2), 89-129.
- 성기혜 (2009). 정신과 외래 환자가 지각하는 낙인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15(2), 127-138.
- 양기근 (2008).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현장지위체계의 개선방안: 한국과 미국의 비교론적 관점. *사회과학연구*, 34(3), 81-104.
-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전지열, 이화정, 김미정 (2017a).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심리정서, 신체, 인지, 행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55-291.

-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서은경 (2017b).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사회적 지지, 갈등, 고립경험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8(5), 331-355.
- 이민화, 서미경 (2019). 정신장애인의 자기낙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당성인식과 집단동일시의 조절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147-173.
- 이선영 (2011). 대형재난사고 유가족의 생활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5, 109-144.
- 이은주 (2016). 심리상담에서 낙인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가 전문적 도움 추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운, 박현숙 (2017). 입원한 조현병 환자의 내재된 낙인, 분노 표현 방식 및 정신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6(2), 143-150.
- 전지열, 신지영, 최준섭, 김정환, 이동훈 (2019).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1-48.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함승경 (2019). 재난 위협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이 공중 반응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비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3), 277-321.
- 현명선, 김영희, 강희선, 남경아 (2012). 정신장애인의 낙인 (stigma) 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2(2), 226-235.
- 홍주현, 나은경 (2015).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보수 종편 채널 뉴스의 피해자 범주화 및 단어 네트워크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59(6), 69-106.
- Allport, G. W., Clark, K., & Pettigrew, 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 Angermeyer, M. C., Matschinger, H., & Riedel-Heller, S. G. (1999). Whom to ask for help in case of a mental disorder? Preferences of the lay public.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4(4), 202-21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Arlington: VA.
- Bennett, D., Barrett, A., & Helmich, E. (2019). How to... analyse qualitative data in different ways. *The Clinical Teacher*, 16(1), 7-12.
- Bhattacharya, C. B., Rao, H., & Glynn, M. A. (1995). Understanding the bond of identification: An investigation of its correlates among art museum members. *Journal of Marketing*, 59(4), 46-57.
- Braun, V., & Clarke, V. (2012). *Thematic analysis*. In H. Cooper, P. M. Camic, D. L. Long, A. T. Panter, D. Rindskopf, & K. J. Sher(Eds.), *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Quantitative, qualitative, neuro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p. 57-71).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serta, M. S., & Lund, D. A. (2007). Toward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of daily widowed life(IDWL): Guided by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Death Studies*, 31(6), 505-535.
- Chapple, A., Ziebland, S., & Hawton, K. (2015). Taboo and the different death? Perceptions of those bereaved by suicide or other traumatic death. *Sociology of Health & Illness*, 37(4),

- 610-625.
- Corrigan, P., & Gelb, B. (2006). Three programs that use mass approaches to challenge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57(3), 393-398.
- Corrigan, P. W., Kerr, A., & Knudsen, L. (2005).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Explanatory models and methods for chang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1(3), 179-190.
- Corrigan, P. W., & Kosyluk, K. A. (2014). *Mental illness stigma: Types, constructs, and vehicles for change*. In P. W. Corrigan (Ed.), *The stigma of disease and disability: Understanding causes and overcoming injustices*(p. 35-5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rrigan, P. W., Markowitz, F. E., Watson, A., Rowan, D., & Kubiak, M. A. (2003). An attribution model of public discrimination towards persons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4(2), 162-179.
- Corrigan, P. W., Morris, S. B., Michaels, P. J., Rafacz, J. D., & Rüsch, N. (2012). Challenging the public stigma of mental illness: A meta-analysis of outcome studies. *Psychiatric Services*, 63(10), 963-973.
- Corrigan, P. W., & Shapiro, J. R. (2010). Measuring the impact of programs that challenge the public stigma of mental illnes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8), 907-922.
- Corrigan, P. W., & Watson, A. C. (2002). The paradox of self-stigma and mental illnes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9(1), 35-53.
- Creswell, J. W., Hanson, W. E., Clark Plano, V. L., & Morales, A. (2007).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5(2), 236-264.
- Cvinar, J. G. (2005). Do suicide survivors suffer social stig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41(1), 14-21.
- Feigelman, W., Jordan, J. R., & Gorman, B. S. (2009). How they died, time since loss, and bereavement outcome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58(4), 251-273.
- Goodenough, B., Drew, D., Higgins, S., & Trethewie, S. (2004). Bereavement outcomes for parents who lose a child to cancer: Are place of death and sex of parent associated with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functioning?. *Psycho Oncology*, 13(11), 779-791.
- Greer, C. (2007). *News media, victims and crime*. In P. Davies, P. Francis, C. Greer (Eds.), *Victims, Crime and Society* (pp. 21-49). London: SAGE.
- Kao, Y. C., Lien, Y. J., Chang, H. A., Wang, S. C., Tzeng, N. S., & Loh, C. H. (2016). Evidence for the indirect effects of perceived public stigma on psychosocial outcomes: The mediating role of self-stigma. *Psychiatry Research*, 240, 187-195.
- Kosyluk, K. A., Al-Khouja, M., Bink, A., Buchholz, B., Ellefson, S., Fokuo, K., ... & Powell, K. (2016). Challenging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9(3), 325-331.
- Livingston, J. D., & Boyd, J. E., (201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internalized stigma for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71(12), 2150-2161.

- Markowitz, F. E. (2001). Modeling processes in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Relationships between symptoms, life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1) 64-79.
- Neimeyer, R. A., & Jordan, J. R. (2002). Disenfranchisement as empathic failure: Grief therapy and the co-construction of meaning. *Disenfranchised Grief*, Research Press Champaign, IL, 95-117.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Peters, K., Cunningham, C., Murphy, G., & Jackson, D. (2016). People look down on you when you tell them how he died: Qualitative insights into stigma as experienced by suicide survivo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5*(3), 251-257.
- Picco, L., Pang, S., Lau, Y. W., Jeyagurunathan, A., Satghare, P., Abdin, E., ... & Subramaniam, M. (2016). Internalized stigma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Associations with quality of life, functioning, hope and self-esteem. *Psychiatry Research, 246*, 500-506.
- Pitman, A. L., Osborn, D. P., Rantell, K., & King, M. B. (2016). The stigma perceived by people bereaved by suicide and other sudden deaths: A cross-sectional UK study of 3432 bereaved adult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87*, 22-29.
-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 & Bonanno, G.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 6*(8), e1000121.
- Rogers, C. H., Floyd, F. J., Seltzer, M. M., Greenberg, J., & Hong, J. (2008). Long-term effects of the death of a child on parents' adjustment in midl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203-211.
- Schmader, T., Major, B., Eccleston, C. P., & McCoy, S. K. (2001). Devaluing domains in response to threatening intergroup comparisons: Perceived legitimacy and the status value asymmet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5), 782-796.
- Shear, M. K., Wall, M., Zisook, S., & Neimeyer, R. (2011). Complicated grief and related bereavement issues for DSM-5. *Depression and Anxiety, 28*(2), 103-117.
- Sheehan, L., Corrigan, P. W., Al-Khouja, M. A., Lewy, S. A., Major, D. R., Mead, J., ... & Weber, S. (2018). Behind closed doors: The stigma of suicide loss survivor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77*(4), 330-349.
- Sheehan, L. L., Corrigan, P. W., Al-Khouja, M. A., & Stigma of Suicide Research Team. (2016). Stakeholder perspectives on the stigma of suicide attempt survivors. *Crisis*.
- Schulze, B., & Angermeyer, M. C. (2003). Subjective experiences of stigma. A focus group study of schizophrenic patients, their relative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99-312.
- Stroebe, M. S., Folkman, S., Hansson, R. O., & Schut, H. (2006). The prediction of bereavement outcome: Development of integrative risk factor framework.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99-312.

- 63(9), 2440-2451.
- Stroebe, M. S., & Schut, H.(1999). *Models of coping with bereavement: A review*.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Eds.), *Handbook of Bereavement and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pp. 375-40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alsh, F. (2007). Traumatic loss and major disasters: Strengthening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e. *Family Process, 46*(2), 207-227.
- Watson, A. C., Corrigan, P. W., Larson, J. E., & Sells, M. (2007). Self-stigma in people with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33*(6). 1312-1318.
- Watt, R. G. (2007). From victim blaming to upstream action: Tackling the social determinants of oral health inequalitie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35*(1), 1-11.
- Yanos, P. T., Roe, D., Markus, K., & Lysaker, P. H. (2008). Pathways between internalized stigma and outcomes related to recovery in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Psychiatric Services, 59*(12). 1437-1442.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원 고 접 수 일 : 2020. 08. 19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1. 04
게 재 결 정 일 : 2021. 03. 04

Exploration of Bereaved Families' Stigma Experiences Five Years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Application of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Stigma to the Ferry Family Council

Wook-Hyun Kwon

Master degree

So-Jung Heo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degree

Dong-Hun Lee

Professor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stigma in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5 years lat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with 15 parents belonging to the 4.16 Sewol Ferry Family Council, and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based on Corrigan and Kosyluk's Social Cognitive Model of Stigma. Experiences of stigma were classified into public stigma and self-stigma, which were divided into stereotyp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public stigma, stereotype had 6 categories (e.g., "uncomfortable to be with"), prejudice had 6 categories (e.g., "uncomfortable"), and discrimination had 5 categories (e.g., "keeping away"). In self-stigma, stereotypes had 3 categories (e.g., "to consider oneself a sinner"), prejudice had 2 categories (e.g., "guilt"), and discrimination had 3 categories (e.g., "withdrawal from society"). In addition, 5 categories of protective factors against social stigma were derived.

Key words : Sewol Ferry Disaster, 5 years after, bereaved parents, stigma, social cognitive model of stigma